



결혼과 유전 및 건강진단



李 摆 東

죽전 반에 걸쳐 중대사일 것이다.

結婚과 遺傳

결혼을 해서 좋은 아들 딸 낳기 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常情) 일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좋은 소인(素因)이 전해지고 병적이고 나쁜 유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결혼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 본다는 것은 의당한 것 이리라.

필자의 경우 결혼기를 앞둔 남녀 당사자나 양가 가족에게서 정신병의 유전여부를 문의받을 때가 흔하다. 아무튼 정신과 영역에서 결혼과 유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의 하나임에는 틀림없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

精神病의 發現양상

지금까지 알려진 정신병의 유전에 관한 지식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인간 상호간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많은 미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딱히 어떤 공식(公式)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애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보통 유전이란 경우 우선 생각되는 것은 선천적소인(先天的素因)이다. 즉 정신병에 걸리는 유전자를 후대에 옮겨가는 특수한 소질인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소인은 자손에 옮겨진다 해도 반드시 모두 발현(發現)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인은 다른 소인들과 경합하고 상호작용해서 결국 나타나기도 하며 억눌려지기도 한다. 또한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신병 발병에서 소인과 환경의 작용은 반반이라는 생각이 타당한 생각이다.

遺傳樣式

유전의 양식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단일요소유전(單一要素遺傳)이다. 이는 유전의 한 가지 인자(因子)만으로 유전이 거의 다 결정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다요소유전(多要素遺傳)인데 여러 인자들의 합쳐진 작용으로 결정되는 양식이다.

우성유전(優性遺傳)으로 나타나는 정신과병들 :

유전자가 그 효과를 단독으로 또는 이질접합자(異質接合者)의 형태로 나타난다. 병든 가족의 3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보면 유전의 소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우성 유전의 전형적인 예는 한턴던씨무도병(舞蹈病)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그렇게 깨끗하게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성유전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나 의심되는 병들 중에는 조울병(躁鬱病)이 가장 대

표적인 예이고 동성애(同性愛), 퍼크씨병, 파킨슨씨병이 있다. 지능부족(知能不足) 중에서도 희귀한 예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약한다.

열성유전(劣性遺傳)으로 나타나는 병들 :

열성유전은 직계가족만 가지고는 유전의 특성을 알 수 없으므로 가족친척 관계를 널리 알아 보아야 한다. 열성유전은 인간의 유전에서 가장 혼란한 형태이다. 열성유전의 전형적인 예는 폐닐케톤뇨(尿)증이다. 이 외에 지능부족증을 나타내는 혼치 않은 예를 월손씨병, 월더씨병, 흑내장백치(黑內障白痴) 같고, 아리슴(혈려씨병) 등이 있다. 그중에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이 여기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정신분열병을 열성으로 단일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쌍생아(雙生兒) 연구 등에 의해서 그런 주장이 뒷받침된다해도 정신분열증 자체를 규정하기부터가 어려울뿐 아니라 여러 다른 복합적인 자의 작용이 가미될 수 있으므로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요소유전(多要素遺傳)에 의한 병들 :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해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간질(癇疾)의 유

천여부에 대해서는 여려사람들의 관심이 꽤 많은데 유전이 인정된다면 유전의 효과는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양상이 특정하지 않고 첨가적인 것이다. 간질은 특발적인(원인모름) 과증상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소발작(小發作)이 특히 유전성이 높은 것 같다.

기타 신경증의 어떤 경향이나 동성애·동고증(蒙古症)도 논란이 되는 것들이다.

健康診斷

위에서 대충 알아보았지만 정신과 영역에서의 유전병의 발현 양상

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으므로 그 결정적 단서를 추구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어떤 것이 유전적인 요소이고 어떤 것이 환경적 요소인지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생학적(優生學的) 견지에서는 혈통(血統) 쟁등이 연구, 및 통계적 조사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열성유전이나 다요소적 유전의 경우엔 현재 유전특성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개인의 정신건강 진단엔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필자=청량리뇌병원 부원장·의박>



취 잡기 작전

A=애, 은숙아 저 포스타를 보아라 내일 오후 7시에 전국 일제히 취약 놓기 작전이 셔 있구나!

나도 집에 가서 취약을 놔야지—.

B=쉿! 언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말을 듣고 취들이 도망가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이잖아!

더 이상 못참아

미쓰 혼과 그의 애인 김 삼수준이 호젓한 산간에 캠핑을 갔다.

김 삼수준 미쓰 혼에게 닥아와서 하는 말—

『이 이상 더는 못 참겠어! 어떻게 즐 해줘요 응!』

미쓰 김은 오들 오들 멀고 고개를 멀구웠다.

길준 왈 『이 이상 더는 소변을 못 참겠으니 제발 좀 비켜줘!』